

궤변과 진리의 경계

金 惠 淑

(梨花女大 哲學科)

철학자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 “부자들은 철학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왜 철학자들은富有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부자들 뒤만 따라다니니까?” 철학자는 대답했다. “철학자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만, 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물었다. “왜 당신은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의 발 밑에 엎드려 합니까?” 철학자가 답했다. “왕은 발에 귀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詭辯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간이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 문자로써 짧은 기억을 대신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그러나 언어를 사용할 줄 알게 된 뒤로 인간은 거짓과 언어의 남용이라는 문제에 부딪쳐야 했고, 진리를 찾아 해매는 끝없는 방랑의 길을 나서야 했던 것이다. 眞理에 대한 探究란 언어 사용이라는 인간 현상이 스스로 자초해낸 고행의 길인지는 모르겠다. 인간은 무한한 자기 증식의 과정에 놓인 언어 속에서 스스로의 뜻에 걸린 모습으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동물들도 거짓을 말할까? 그들도 위장이나 보호색, 속임수 등을 쓰기는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얼마간의 경험을 통해 속이 밝혀질 수 있는 바의 것들이다. 그 어느 것도 참된 의미와 인간 언어 사이의 교묘한 숨바꼭질 놀음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과 진리를 드러내는 논증, 과연 그 둘은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확연히 판명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차원일까? 돈을 받고 논쟁술과 지식을 팔았던 고대 그리스의 궤변론자들과 오늘날의 교수는 무엇이 다를까? 오늘날의 교수들은 월급을 받고 혹은 연구비를 받아 일을 하긴 하지만 분명 궤변가들은 아닌 듯싶다. 궤변가들의 관심은 주로 어떻게 하면 논쟁에서 이기는가이지, 논쟁의 내용이나 논쟁을 통해 밝혀져야 할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연구는 단지 남을 이기기 위해, 혹은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럴듯한 修辭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에 의존해서 정교한 사고를 구성해 내기 때문에 또한 언어를 가장 많이 남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다.

言語의 濫用은 정치가들에 의해 물론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조금씩 음미하고 경험하면서 그 뜻을 익혀가야 할 말들이 너무도 값싸고 쉽게 그리고 [아무데서나 말해지고 있기 때

문에 이제 그 말이 표현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말하려면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난감해졌다. 그것들에 대한 약속은 또한 너무도 쉽게 저버려졌기에, 그에 대한 바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썩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의 말은 위험하지가 않다. 우리는 그 편한 놀이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말놀음을 단지 공중에 흩어지는 비눗방울처럼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다.

敎授의 말은 그러나 정치가의 말과는 다르다. 아니, 달라 보인다. 대단한 것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사실판단, 통계, 수학적 동식, 냉철한 분석력, 직관적 통찰 등등을 바탕으로 참다운 진리를 겸손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수가 하는 말이면 그것이 아무리 속되고 하찮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 설혹 삼류 주간지에 등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 자신에게 보이는 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보려 한다. 그렇기에 교수의 말은 정치가의 말보다 때로는 더 위험하며, 더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정치가는 경계하지만, 교수는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가의 힘에 비해 교수의 힘이란 미미한 것이기에 교수를 경계할 필요는 없을 터이니 말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진리 탐구를 입에 걸고 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 있어 정치가나 교수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정치가도 정의나 평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의 방식을 입에 달고 다니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선거를 통해 제재를 받지만, 교수에게는 자신의 양심만이 있을 뿐이다. 良心은 바깥으로부터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또한 임의적으로 사용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따라서 자신도 슬쩍 눈감아 버리는 위선의 가능성 또한 높다.

競爭의 論理가 지배하는 곳은 그래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오늘날 국제적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편적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기업이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생존의 논리에 따라 합리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어떠한가?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은 대학에 오지 못해 아우성이고,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끌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이제껏 이루어진 관행대로 학생들은 성적에 맞춰 알아서 대학에 들어온다. 교수들도 이세 경쟁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일조조건만 만족되면 전임된 헛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게 되어 있다. 사회에 대해서는 자유 경제체제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안에서는 無差別的 平等主義의 원리를 고수하려 한다. 밖에다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과 구상을 열렬히 토로하고, 근거 없는 차별을 비판하고 힘 가진 자들의 횡포를 날카롭게 분석·비판하면서 당당하게 여자는 임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개방된 사회, 시민윤리,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합리성, 수학적 진리에 대한 신념을 개진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누구보다도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면 갑자기 앞 뒤 분간이 안 되는 울퉁불퉁한 자갈길 밭으로 들어선 것처럼 되고 만다. 갑자기 의사 전달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유창하게 강의가 흘러나왔던 입은 꼭 다물어지고 서로가 진정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의되는 내용이 원칙적일수록 대학의 얼굴은 바람맞은 사람의 얼굴처럼 자꾸 빼뺀어져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울을 볼 줄 모른다. 정치가들에게는 군중들의 야유라도 있지만, 대학의 담은 진리의 담쟁이만 무성할 뿐이다.

大學이 健康하려면 건전한 경쟁의 논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대학간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문제에 있어서도 공정한 시장경제의 논리가 작용해야 하며, 학문적 수월성에 의한 평가나 대우가 일반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화시대에 외국의 여타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으며, 학문외적 요소

들이 관을 짐으로써 대학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래야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와 역사를 논하고 인간다운 삶과 자연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고집스러운 자기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려 한다. 진리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내걸고 있는 간판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케번가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대학은 오히려 정치판만도 못해 보인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까?

얼마전 학회에 갔다 모 대학 학생들이 나누어준 유인물에 쓰여진 말이 기억에 깊이 남아 있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실력이 월등한 교수가 임용되는 것을 항상 꺼려온' 누군가를 말하고 있었다. 학생들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표현은 같은 교수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교수의 실력이란 것이 등수 매기듯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보다 월등한 능력의 교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마음편한 일은 못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극복스러움을 극복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나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며, 학과와 학생들 나아가서는 대학에 불이익을 초래케 하면서 나 자신만의 마음의 평안을 구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학생들을 消費者의 입장에 놓고 대학이 그들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면, 대학운영은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敎授 任用에서 제외하는 일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무척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금방 이를 느낄 수가 있다. 빠른 변화와 함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대학이 언제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대학은 너무 구태의연한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가 십 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들을 하면서 '진리는 불변하니까'라고 말한다면, 이야말로 케번이 아닐 수 없다. 대학에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생각을 실험해 보고 도전해 보는 자유로운 정신이 부재한다면, 지적 활기 대신 정치적 놀음이 들어선다면 대학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잠자는 공주의 城, 성 밖의 누군가에 의해서만이 마법이 풀리는 깊이 잠든 성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성적 사유와 그것의 표현에 있어 교수를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하고, 일관성있게 쓰여져야 한다. 남에게 준엄하듯 나 자신에게도 준엄해야 하며, 편의에 따라 얼굴을 바꾸고 그것을 현란한 언어로 치장하는 데 그 날카로운 지성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플라톤의 유리테무스라는 대화편은 어떤 명제든지 반박해내는 케번론자가 자신의 대화 상대자에게 그의 아버지는 개이고, 강아지들은 그의 형제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대화를 담고 있다. 고대의 케번가는 상대방의 아버지가 개임을 힘들여 증명하려 했지만, 오늘의 케번가들은 무엇을 증명하려 하고 있을까? 謔辯과 眞理가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나는 또 어떤 케번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낮간지러운 거짓된 광고와 구호, 지키지 않을 철칙 같은 약속들과, 천박한 얼굴을 뻔뻔스럽게 들이밀고 있는 온갖 종류의 네온사인광과 같은 자기 과시의 홍수 속에서 대학마저, 교수들마저 케번과 자기 정당화의 변으로 변들거린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言語는,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는 精神은, 특정한 이익에 따라 사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언어는, 우리의 全存在를 싣고 있는 목적이며, 또 우리는 언어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